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HE VOICE INSIDE MY HEAD

가제 : 머릿속에 울리는 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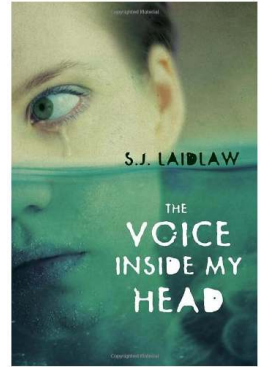
저자 : S.J. Laidlaw

출판사: Tundra Books

발행일: 2014년 3월 11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YA 소설



온두라스 낯선 섬에서 사라져버린 누나, 미스터리한 행적을 쫓기 시작한 동생의 여정

열일곱 살 루크에게는 모든 선택의 순간에 기준을 제시하는 대상이 있다. 바로 누나 팻이다. 마치 머릿속에 울리는 목소리처럼, 누나는 매순간마다 루크에게 가야할 길을 알려준다. 어느 여름, 팻은 고래상어를 연구하기 위해 온두라스의 작은 섬 우틸라로 떠나고, 얼마 후 무슨 영문인지 사라져버린다. 경찰은 팻이 물에 빠져 사망했다고 주장하지만 시체는 발견하지 못하고, 루크는 결국 직접 누나를 찾기 위해 온두라스로 향한다. 누나가 자취를 감춘 뒤부터 루크의 머릿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누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하고, 그 목소리가 루크의 발길을 이끌었다.

늘 책임감 넘치고 계획에 따라 생활하던, 엄격한 채식주의를 고집하던 누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던 루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누나는 그 낯선 곳에서 트리시아라는 다른 이름으로 생활했다는 것. 게다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누나의 성격과 모습은 그 동안 루크가 알던 것과 전혀 달랐다. 루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특징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성격이었다. 그 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루크는 누나가 실종되기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단서를 조금씩 수집하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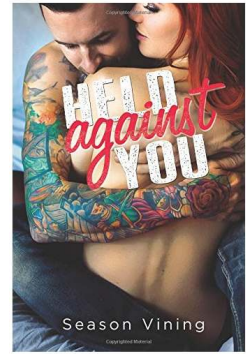
실종 당일, 분명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파티를 즐기고 있던 누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고 모두 이야기한다. 자리를 뜨는 모습을 본 사람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사람도 없다고 한다. 실종 소식을 듣자마자 먼저 우틸라를 다녀온 부모님이 받은 경찰보고서에 누나가 입고 있던 옷은 부두 한 켠에서 발견됐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마치 수영을 하려고 벗은 것처럼. 하지만 그 날 밤엔 폭우가 쏟아졌고, 누나는 평소 수영 실력이 뛰어나긴 했지만 비가 내리는 높은 파도 속으로 뛰어들었으리라곤 생각할 수 없었다. 무언가 이상하다.

전혀 다른 성격과 이름으로 지내야 했던 누나의 진실, 정말 의사한 걸까 아니면 모습을 감춘걸까 누나의 행방과 우털라에서의 생활을 깊이 파헤칠수록 루크 역시 온갖 위험한 상황에 놓이고, 누나가 죽기를 바라는 존재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머리를 들기 시작한다. 급기야 루크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일도 발생한다. 루크는 술에 진탕 취하거나 마약도 해왔던 자신의 골치 아픈 삶이 누나를 내쫓기게 만든 요인은 아니었을까 하는 뼈저린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누나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괴로워한다. 낯선 섬 마을을 방문한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간의 팽팽한 긴장감은 팻의 행방을 쫓는 루크에게 더욱 커다란 장애가 되고, 그러면서도 확고한 마음으로 진실을 파헤치려는 루크의 모습은 깊은 울림을 준다.

<저자 소개>

S. J. 레이드로(S. J. Laidlaw)는 영어로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아프리카에서 교사로 자원봉사를 했다. 이후 캐나다로 돌아와 임상사회복지사 석사를 다시 공부한 후 여러 나라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다. 첫 저서로 발표한 《An Infidel in Paradise》는 큰 찬사를 받았다.

제목 : HELD AGAINST YOU
가제 : 널 원망했어
저자 : Season Vining
출판사: St. Martin's Griffin
발행일: 2015년 1월 13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YA 소설



모두에게 버림받고 홀로 힘든 도피길에 오른 현상수배범, 그녀를 가로막은 현상금 사냥꾼

잔에 남은 커피를 마지막으로 입에 털어 넣고, 컷은 의자 끄트머리로 옮겨 앉았다. 전 재산이 모두 들어 있는 가방을 메고, 잠깐 영수증을 봤다. 테시 카페. 7달러 53센트. 파이도 주문을 해야 하는건데, 그럼 딱 10달러가 됐으리라 생각하면서 주방으로 들어가는 웨이트리스의 뒷모습을 확인한다. 주방 문이 닫히고 3초를 기다렸다가, 찢은 얼른 자리에서 일어선다. 물기가 남은 바닥에 운동화가 미끄러지면서 그만 킁, 하는 요란한 소리가 나고, 다급히 문을 나서다가 문가에 어정거리던 학생과 부딪힌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밖으로 나선 찢은 작은 돌맹이처럼 몸을 후려치는 굵은 빗줄기를 맞으며 주차된 차들 사이를 전속력으로 뛰기 시작한다.

“그 여자 저기로 간다! 저쪽으로 뛰어갔어!” 등 뒤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리고, 찢은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있는 힘을 다해 달린다. 폐가 불타고 다리는 뼈가 없어진 느낌이 들 정도로 말이다. 그녀는 어느 골목 좁은 벽 사이에 겨우 숨어서 잠시 비를 피하면서 숨을 돌린다. 이젠 아무도 못 찾을 것이다. 찢은 어쩌다 이렇게 내가 도둑이 된 걸까 잠시 생각한다. 가방 안에 든 물건이라고는 깨끗하게 뺀 양말 몇 켤레, 과자 몇 봉지와 이 지옥 같은 도망길에 오르기 전 열심히 모았던 싸구려 장신구 몇 개가 전부였다. 온통 젖었지만 가방 속 물건이 무사한 걸 확인하고 조금 안도한 찢은 고속도로를 피해 잡초가 훌쩍 자란 길을 터벅터벅 걸어간다.

도망가야 하는 여자와 절대 놓치지 않으려는 남자, 둘의 위험천만한 여행과 숨겨진 비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현상수배자가 된 찢. 그 일로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찢을 거부하고 받아주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도피길에 오른 찢은 가방 하나에 의지하며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중이다. 그러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자를 만나고, 홀로 방황하던 생활도 끝이 난다. 그는 바로 현상금 사냥꾼이었다. 절대 먹잇감을 놓치지 않는 악명 높은 사냥꾼으로 유명한 그 남자. 그는 지금껏 한번도 목표물을 놓친 적이 없다. 누구보다 냉혹한 그의 모습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아픔이 감춰져 있다. 그런 그가 찢에게서 뭔가 특별한 느낌을 받는다. 아름다운 그녀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꾸밈 없는 순수함,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있던 약점을 건드리는 무언가가 그녀에게 있다.

두 사람은 결국 함께 떠돌기 시작하고, 붙잡으려는 자와 붙잡힌 자라는 극복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점점 끌린다. 두 사람 다 그 마음을 부인하지 못한다. 여행길에서 둘은 더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게 될까? 아니면 언젠가 드러날 위험한 비밀이 두 사람을 완전히 갈라놓게 될까?

<저자 소개>

시즌 바이닝(Season Vining)은 그래픽 디자이너, 자원봉사자이자 작가로 데뷔작인 《BEAUTIFUL ADDICTIONS》은 많은 찬사를 받았다.